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30주일
제35권 48호(나해) 2015년 10월25일

[목사]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르티매오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신나게 동네로 뛰어가서 사랑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세상사에 넋이 빠져서
어느새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됐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이다.

바르티매오는 눈을 뜨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다.

너무나 자주 하느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속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
아쉬울 땐 하느님을 찾고
배부를 때는 하느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우리를 보는 것 같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아들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동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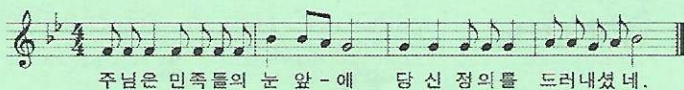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토요 특전 미사	(연) 신임순 안나, 임규예 분다, (생)
주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용식 베드로, 최근석 마리아,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진은란 아네스, 이사범 로벨도 & 윤주경, 이종수 마틴, 김기준 안젤라, 민기남 모니카, 고준희 제임스, 김영식 & 김영자, 장세훈, 최병덕 바오로, 김진성 루스 & 김수정 발바라, 권재식 네오 & 박유순 빅토리아 (생) 심영인 사비나, 권안나 & 켄트, 김형미 테레사, 정애나세라피나 & 정에릭 & 정린다렘마 & 정엘리스 클라라, 박완철 다니엘 & 박희자 마리아, 윤경옥 실비아, 김철레 아네스, 윤선희 로사가족, 김무웅 이냐시오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Isaiah) 2,1-5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올려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0,9-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영성제송 마태오(Matthew) 28,16-20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국 교회의 역사

머리말

오늘의 교회는 인간의 보편적 구원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자각에 입각하여 오늘의 교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구원을 위한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로 여기게 되었다. 교회의 본질이 계명이 아닌 사랑에 있음을 거듭 천명하였다. 또한 오늘의 교회에서는 서구 문화와 그리스도교 신앙이 일치한다는 가설이 허구임을 알게 되었고, 복음과 문화를 구별하여 서구적 가치뿐만 아니라 민족적 가치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사의 서술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해하게 되었고, 복음과 문화의 분리를 체험하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족의 보편적 구원과 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회사를 서술해야 하는 책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과거 교회가 걸어온 길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오늘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으며, 인류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모범을 확인하여 따름으로써 현재와 미래 교회의 발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한국사와 한국 교회사의 주역으로 우리 자신을 키워 갈 수 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을 올바르게 밝히려면 교회사적 사건의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교회는 민족 공동체 안에서 활동해 왔고, 교회와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 아래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 양자 간의 관계를 밝히는 일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토양과 기후 조건을 살펴서 복음의 싹과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는 일이 된다.

< 계속 >

이 글은 한국 천주교회 총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에 실린 조광(고려대학교 교수)의 글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초기부터 2000년까지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94	215	234
봉헌	423	269	270
성체	424	287	287
파전	그 사랑 주님께	181	333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1. “자, 주님의 빛 속에 들어가자!”(제1독서: 이사 2,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에서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는 다음과 같이 적시(揭示)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로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7항)

오늘 제1독서는 야곱 집안, 곧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이 주님의 빛 속에 들어오도록 독려합니다. 주님의 빛은 구원(救援)을 상징하며, 이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실현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 선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2. “선포자, 아름다운 사람!”(제2독서: 로마 10,15 참조)
얼마 전에 우연히 손가락 끝 마디가 잘려나간 수녀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선교사로 파견된 분인데, 하루는 서둘러 미국으로 향하던 멕시코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건네주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여 그리 되었답니다. 다행히도 상처 부위는 잘 아문 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본래보다 어쩔 수 없이 짧아진 수녀님의 손가락을 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고 강조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격려하십니다. 분명 그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느님 현존으로 변모된 삶(「복음의 기쁨」 259항)”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3. “너희는 가서 나를 전하여라!”(복음: 마태 28,19 참조)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미국 방문 중에 언급하신 일화입니다. 카타리나 드렉셀(Katharine Drexel)이라는 미국 여성이 어느 날 레오 13세 교황님을 알현하면서, 자기 집안이 세운 학교에 선교사제들을 파견해 줄 것을 청원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님은 “그런데, 자매님은요?”라고 반문(反問)하시면서, 그녀 자신이 선교사가 돼주길 권하셨습니다. 그 여성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곧바로 수녀회를 창설하였고, 2000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諡聖)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매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대한 기꺼운 응답이 ‘주님과 함께’(마태 28,20 참조) 성화(聖化)되게 합니다.

4.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전교주일을 지내면서 그동안 복음마저 ‘소비(消費)’하던 우리의 태도를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비로소 우리 가정이 ‘선교의 못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주 기도의 모후이신 성모님, 저희의 가정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로마10,15)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 아멘.

◆ 정연정 신부 / 절두산 순교성지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진수 스테파노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0월 묵주기도 성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묵주 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전교주일 2차헌금:10월18일(17일 특전미사 포함)
오늘(10월18/17 주일)은 '전교 주일'로 전세계 선교지역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전교주일 특별 헌금은 '교황청'에 보내져 전 세계 선교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쓰입니다. 적극적인 봉헌을 바랍니다.

◆안나회 효도관광(레이크 엘시노어 온천장)

- 일시 : 11월9일(월요일)
- 대상 : 55세이상(전신자, 남,녀불문), 45명 예정, 선착순
- 회비 : \$30(1인), \$40(부부 또는 가족2인)
- 출발 : 오전 7시 30분, 오후 6시도착 예정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묵주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 (310)781-0021

◆ 2016년 새해달력 광고 후원 받습니다.

- 신청마감 : 오늘 주일(18)까지, 사무실
- 내용 : 교황님의 미소
- 새해달력은 전,후 달을 포함하여 3달을 한 면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전례력(독서, 복음, 성인축일, 대축일), 미국 국경일과 미국교구 대축일, 한국명절, 국경일도 명시되어있습니다.

◆페루 선교에 보낼 학용품을 모읍니다

- 배론 청년회에서 페루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하기 위하여 학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10월말까지).
-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도네이션 해 주세요
- 가방, 공책, 필기도구, 미술도구 등 (새것 또는 깨끗한 것)
 - 문의 : 박현희 프란치스코 ☎(310) 592-4739

◆ 서예와 사군자에 관심 있는 교우 모집합니다.

- 시간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시~3시30분
- 장소 : 2층 유아실
- 강사 : 일호 박태홍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하느님의 자녀보호교육

(Protecting God's Children for Adults)

아이들과 관련되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L.A.대교구 방침으로 이 교육을 수료하셔야 하고 또한 대교구에서 요구하는 지문채취를 하셔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교육이기에 더욱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 한국어 Virtus Training : 10월25일(주일)오후1시~4시
- 장소 : 강당
- 대상 : 아이들과 관련되어 봉사하시는 모든 분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18일 * 토서1,3반 : 비빔밥 (\$3),
* 주일학교 : 햄치즈 샌드위치 (11,12 학년)
- 10월25일 * 토남1,2반 : 소고기국밥 (\$3),
* 주일학교 : 치킨 케사디아 (9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관기	김교복	김상근	김성택	김성현	김여순
	김일선	김정엽	김정희	김 준	김현숙	노혜숙
	박광자	박상준	박완철	반비오	반정이	서영주
	성미선	송영미	송재훈	안태갑	양영관	엄세종
	오보나	오신재	원건희	유선식	이남현	이민상
	이용무	이일길	이재용	장은희	정규숙	정훈모
	조소영	최수복	한장환	홍인표		
	합계:\$3,930					
주일미사 헌금 :\$2,354						

성전헌금	김관기	김교복	김정엽	김 준	김현숙	노혜숙
	박광자	박상준	반비오	성미선	안태갑	양영관
	엄세종	원건희	유선식	이남현	이민상	이용무
	이일길	정규숙	정훈모	한장환		
	합계 : \$1,590					
	감사헌금 :박수지,박이레네, 김정희 (\$300)					

“세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 ~ ~

남가주 소식

◆LA 골롬바의 집에서 인보성체수도회 스도자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행을 지내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장소 : 248 S. Mariposa Av. L.A. 90004
 - 담당:공 데레사 수녀
- ☎213-389-7760 / 213-785-1147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안내(9개월간)

- 일시 : 2015년 9월 ~2016년 6월
- 주관처 : Loyola Institute for Sprituality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213)507-1144

불행하게 사는 방법

남의 불행을 이야기할 때 유독 눈을 반짝이는 사람을 보면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한 방법을 보는 것 같아 측은해지
곤 합니다.
그런 날 집에 오면 그 반짝임이 낯설지 않아 섬뜩한데,
곰곰 생각해보니 어느 날의 나 역시
남의 불행을 들뜬 목소리로 말하고
호기심에 눈빛을 반짝이지 않았단곤
말하지 못하겠더군요.

-이영 아네스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차 장 박영희 아가다 422-1119
차 장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광자 엘리사벳 991-4838 10/6(화) 오후 6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이희수 올리오&박계순 도미니코 10/17(토) 오후 6시 북해루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10/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 크리스티나 490-9662	엄혜은 도로테아 10/10(토) 6시
	2	윤경옥 살비아 909-557-7490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박명순 안나 10/17(토) 10시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영희 아가다 10/16(금) 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데레사 10/13(화) 11시 성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조정선 마리아 10/10(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오세원 아타나시오 10/5(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이명우마리노 10/10(토) 6시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오영섭 스테파노 755-6905 10/9(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10/16(금)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신혜정 로사 213-369-0687 10/17(토) 12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변복순 베로니카 10/13(화)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회장단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 회의	오후 1시
-------	-------

오세요, 오세요, 그냥 오세요!

[말씀의 이삭]

무비(無比). 이것은 1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범명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불교 신자셨죠.

홀로 아이 셋을 키우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집에 뇌혈관 질환 환자가 있는 집이라면 아시겠지만, 뇌졸중은 참으로 잔인한 병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적 존엄을 지키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병이죠.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을 당시, 아버지 곁에는 고시 준비생인 저와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사글셋방이 전부였습니다. 몇 년간의 병시중 끝에 남은 것은 더 심각해진 후유증과 많은 빚뿐이었습니다. 사법시힘이란 꿈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복지단체를 찾아봤습니다. 요양원은 꿈도 못 꿀 처지였으니까요. 평생을 불교신자로 살아오셨던 터라, 그때 처음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각 종파 종단에 모두 문의해 봤지만, 불교계에서는 그런 복지단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계종 홈페이지에서는 제 문의 글을 두고 한동안 불교 신자들끼리 심각한 논쟁을 벌일 정도였으니까요. 사회적 약자나 병자를 돌보는 일이 종교의 순기능 중 하나라면, 적어도 불교계에서 그런 선행을 찾아보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반대로 개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는 정말이지 손 닿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극도로 곤궁하고 힘들었기에 그곳의 문을 두드렸는데, 가는 곳마다 한결같이 두 가지를 요구하더군요. 아버지의 종교를 바꿀 것과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전도이기 때문에 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한참을 생각하시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차마 개종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굶어 죽더라도 그냥 이대로 살아요.’ 하면서 포기하려던 찰나, 동네 아는 아주머니께서 수원 경로수녀회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몇 개월간의 경험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매우 냉소적인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수녀님께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대략 사정설명을 들으시더니 인자한 미소를 띠며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오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녀님 저희 아버지께서 불교신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오세요.” 다시 저는, “수녀님 저희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 다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냥... 오세요.” 저와 아버지는 원장 수녀님의 세 번의 “오세요.”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한없는 포용이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전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순교보다 위대하다.’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로움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김석환 요셉 / KBS 성우

잡초의 재발견

내가 살고 있는 로사리오의 집에 오는 피정객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한다. “손질 좀 하시지.” 산을 끼고 있는 언덕배기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마당이 넓어 풀들이 무성하기 때문에 한 마디씩 던지는 거다. 그렇다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초기로 또는 제초제로 싹쓸이 제거를 하지 않을 뿐이다. 무성한 풀숲에는 좋은 잡초들이 아주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말이지.

아침에 눈뜨면 가장 먼저 바가지를 들고 마당에 나가 잡초들 중에서 환삼 덩굴을 한 움큼 따가지고 와서는 깨끗이 씻어서 먹는다. 혈압을 낮춰주는 데에 이만한 잡초가 없다. 고들빼기, 질경이, 쇠비름과 비름은 무성하게 자랄 정도로 기다렸다가 효소를 담는다. 달맞이꽃과 개망초는 따서 잘 말렸다가 차를 만들기도 한다. 요즘엔 어디서 날아왔는지 눈개승마가 자라고 있어서 군침을 흘리고 있다. 잡초의 재발견!

도시로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이 아버지의 과수원을 이어받아 가꾸다가 그만 쫓겨날 뻔했단다. 과수들 밑에 풀들이 키만큼 자라도록 내버려두고 있었으니 게을러빠진 아들 놈이 농사를 망쳤다고 아버지가 화를 낼 수밖에... 그런데 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사 간청하면서 그 해 결실을 맺을 때가 되어보니, 아 글썽 아버지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지 않았겠는가. 그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잡초 덕분이라고!

서로 같은 양분만 빨아먹는 단일 농작물들만 있으면 땅은 황폐해진다. 그러나 제각각 다른 양분을 먹고 다른 역할을 하는 다양한 농작물들이 섞여 있으면 땅은 비옥해지고 작물들은 서로 잘 크다. 인간사회도 마찬가지 이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느님의 창조, 생태계의 질서이다. 게으름이 아니라 창조적 생태 영성을 사는 태도, 잡초의 재발견!

◆ 조옥종 신부 / 로사리오의 집

[기도묵상]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만족시키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어떤 것을 내적으로 느끼고 맛들이는 데 있습니다.

-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

자신의 자리를 망각한 하가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집트 여종인 하가르를 남편의 침실로 들여보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는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녀의 여종이 아이를 대신 낳아 대를 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가 생각하기에 몸종 중에서 하가르는 착하고 순종적이라 아이를 낳고도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가르가 임신을 하자 아브라함 부부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가르는 임신을 한 후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16,1-6

하가르는 마치 자신이 안주인이 된 양 착각했습니다. 이러한 하가르의 교만한 행동은 값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하가르는 사라의 구박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고향 이집트 쪽으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광야에 있는 샘터에서 하가르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하가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 하고 묻자, 그가 “저의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16,7-16

시간이 지나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악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악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그리고 하가르와 그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21,1-21

하가르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사랑을 얻어 아들을 출산하지만 사라에 대한 원망과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슬픔과 회한이 뒤섞여 광야를 헤맸습니다. 지쳐서 샘물 곁에 쓰러진 하가르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가르는 광야에서 자신의 짧은 인생을 돌아봅니다. 잠시 잊어버린 자신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할 때 인간은 고통과 시련, 멸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올바른 자리에 늘 서 있습니까?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한 몸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라 하여라. 네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께서 들으셨다.”

(창세 16,11)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을 가져다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한테 기쁘게()주겠지.”

(창세 21,6)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써니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암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쟈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웁(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